

# 고령 송림리 대가야 토기가마유적 학술발굴조사 발굴현장 공개 안내

1. 일시 : 발굴현장공개 2015년 10월 1일(목요일) 오전 11시

2. 장소 : 현장사무실(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314번지)

## 3. 조사 개요

- 유적명 : 고령 송림리 대가야 토기가마유적 학술발굴조사  
(문화재청 허가 제 2015-0637호)
- 발굴사유 : 유적의 보존·보호를 위한 학술발굴
- 조사면적 : 총 525㎡
- 조사기간 : 2015년 8월 10일 ~ 2015년 10월 3일(실조사일 30일)
- 조사기관 : (재)영남문화재연구원
- 사업시행처 : 고령군청 · (재)영남문화재연구원

## 4. 조사 내용 및 성과

-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는 총 6기로, 삼국시대 대가야 토기가마 3기와 폐기장 2기, 조선시대 토광묘 1기이다.
- 대가야의 도읍인 고령 지역 이외 대가야권역에서도 토기생산가마, 특히 전돌가마의 확인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. 토기가마 1·2호는 유적의 남쪽 사면부에서 중복관계를 이루며 조성되었는데,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 대가야의 성쇠를 알 수 있는 5세기 후엽~6세기 전엽대의 토기 이외에도 연화문 전돌과 무문 전돌이 확인되어, 삼국시대 대가야 토기, 전돌의 유통양상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.

## 5. 연락처

- 박헌민(010-9309-4909)

붙임 : 현장조사 사진 자료



사진 1. 토기가마 1·2호, 수혈 1호 조사 전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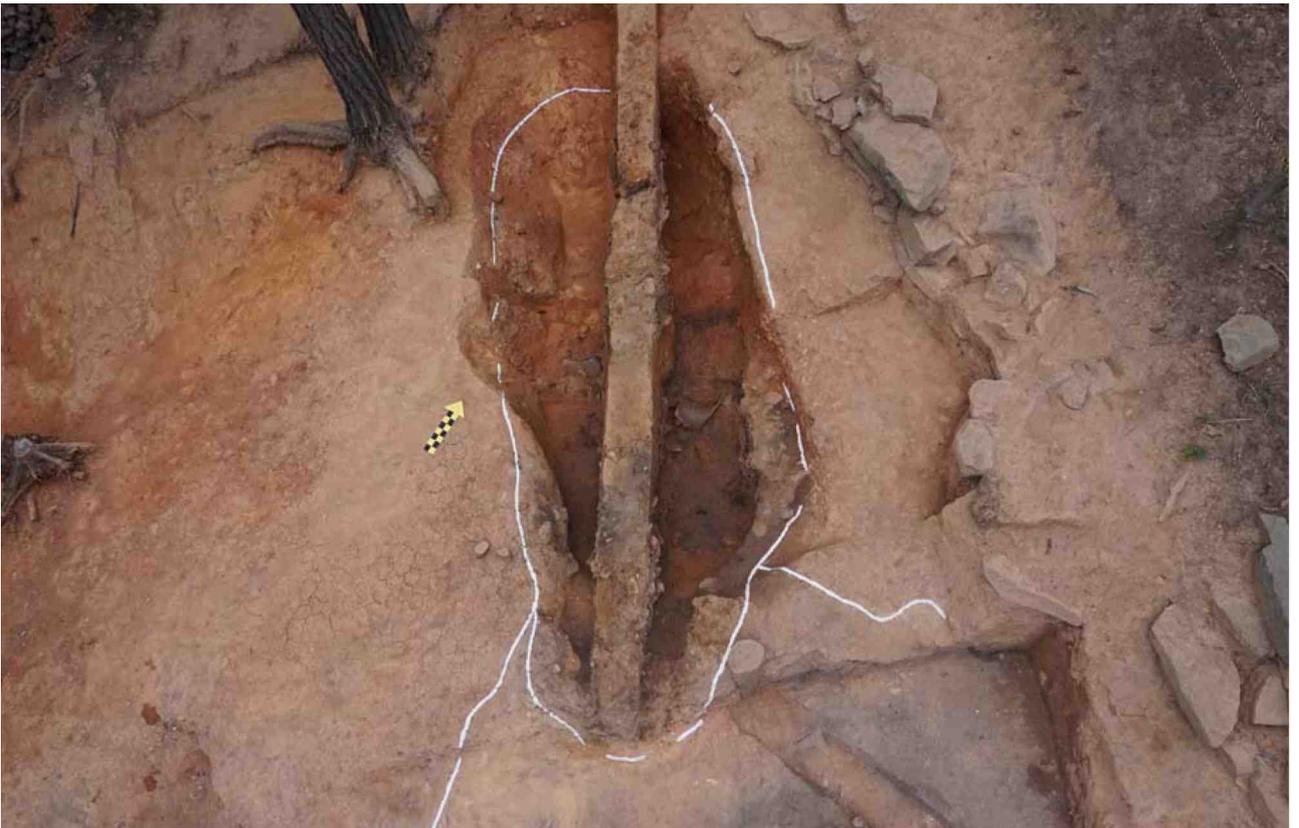


사진 2. 토기가마 3호 조사 전경



사진 3. 폐기장 유물 노출 상태



사진 4. 토기가마 1호 및 2호 상부출토 전



사진 5. 토기가마 2호 출토 전 및 토기류